

CONTENTS

01 최저임금 인상,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영향 우려

- 1_최저임금 상승 추세, 2018년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
- 2_서비스 공급기관,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부담 가능

02 노인돌봄기관, 최저임금 인상 전후 운영변화 미미

- 1_서울 소재 노인돌봄기관 '최저임금 인상영향' 실태조사
- 2_고용인원 규모·총매출액·근로시간 등에서 큰 변화 없어
- 3_노인돌봄기관 86% “최저임금 올라 인건비 부담 증가”
- 4_노인돌봄기관 규모 작을수록 폐업 가능성 ‘더욱 커져’
- 5_대부분 “장기요양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수가 인상해야”

03 자활기업도 최저임금 인상 전후 운영변화 미미

- 1_서울 소재 지역자활센터 '최저임금 인상영향' 실태조사
- 2_센터 36%, 사회복지법인·센터당 자활기업 평균 3.6개
- 3_자활기업 평균 시급 8,225원...29%, 최저임금 이하 지급

04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단계적·맞춤형 지원 필요

- 1_아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‘눈에 띄는 변화’ 없어
- 2_단기: 노인돌봄기관, 자활기업에 인건비·운영비 보조
- 3_장기: 수가 현실화 등 기관별로 차별화된 대응 바람직